

가치·신뢰·평화구축동맹으로

李 대통령, 21세기 한미전략동맹 3원칙 제시

“동맹은 가치·비전공유할 때 더욱 힘 발휘”

이명박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21세기 한미전략동맹의 3원칙을 제시했다. 지난 1957년 설립된 미국 주류사회의 대표적인 친한 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만찬 연설에서다.

이 대통령은 “21세기의 새로운 국제환경에 직면해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 플랜을 짜야 한다”면서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의 3원칙을 내놨다.

우선 가치동맹의 경우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데다 한국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거듭한 결과 양국이

한층 성숙한 가치동맹을 이룰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개념이다. “동맹은 가치와 비전을 공유할 때 더욱 힘을 발휘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신뢰동맹은 양국이 군사·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서로 공유하는 이익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구축되는 동맹관계를 의미한다. 신뢰에 기반한 양국 동맹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동북아시아 평화화를 위한 긴밀한 공조는 물론 동아시아 국가들간 안보 신뢰와 군사 투명성 제고, 다자간 안보협력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반이 된다는 게 이 대통령 의 시각이다.

평화구축동맹은 한미 동맹이 돌아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16일 새벽(한국시간) 뉴욕 피에르호텔에서 열린 동포리셉션에서 장준영, 김하용 어린이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시아 및 법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국제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테러와 환경 오염, 질병, 가난에 시달리는 곳으로 달려가

인도주의에 기초한 인간 안보(human security)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 방미 첫 날 주요 발언들

한미FTA 비준 필요성 역설 북핵폐기 우선 원칙 분명히

이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이) 언제든 마음을 열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 언제든 만날 수 있고 도움을 줄 자세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금융·과학기술분야에 교포 2세 스카우트=이 대통령은 향후 젊은 교포 2세들에 대한 적극적인 스카우트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인 2세들의 한국 내 활동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주주장 ABC방송 앵커의 질문에 대해 “교육·금융·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젊은 교포 2세들을 스카우트 하려 한다.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가르치는데 있어 교포들을 1년 또는 2년 코스로 모집하고 있고 올해 500명 정도를 뽑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 첫날인 15일 오후(한국시간 16일 오전)부터 한미FTA에 대한 양국 의회의 조속한 비준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원칙을 설명하고, 동시에 장차 젊은 교포 2세들에 대한 과감한 국내 스카우트 방침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미 FTA 조속히 발효시켜야=이 대통령은 우선 차세대 한인 동포와의 대화에서 “올해 한미 FTA를 맺게 되면 한미관계가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교포 간담회 발언은 더욱 명료하고 직접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조지 부시 대통령과 만나면 양국간 다소 손상을 입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다. ‘미국이 한미 FTA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며 “FTA가 ‘한국에만 유리한가’ 하는데 한국보다는 오히려 미국에 더 이익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러 코리아소사이어티 만찬 연설에서도 “한미 양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이미 서명한 ‘KORUS FTA’(한

미FTA)를 조속히 발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북 위협에 돌고 협상하는 것 없다=이 대통령은 ‘차세대 한인 동포와의 대화’에서 북한의 대남 위협 언동과 관련, “과거와 달리 위협적인 발언 때문에 북한을 도와주고 협상하는 것은 앞으로 없다”며 북핵폐기 우선 원칙을 분명히 했다.

분노한 野, 혁신도시 충돌

“정책 일관성 흐르는 처사” 강력반발... 감세 놓고도 격돌

이명박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 사업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정책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현 정부 입장을 지원하고 나선 반면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은 “정책의 일관성을 흐르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혁신도시 사업과 관련, 한나라당 조순선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허구였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공공기관 이전 도시의 조성 원가도 턱없이 높아 기업입주도 저조하고, 아파트도 대량 미분양 실패라고 하니 도시 조성과 분양 또한 거품만 잔뜩 끼

게 됐다”면서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관계직인 상당수가 지방 이주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 혁신도시의 의미도 퇴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혁신도시 문제는 실리 타산의 문제로 천착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행위는 필요하면 국가재정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는 건데, 혁신도시 문제는 과급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한 뒤 “이명박 정권은 정책을 통한 보복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오전 최고 위원회에서 “오만과 독선의 극치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부양 해법을 놓고도 대립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자본과 노동의 이동을 촉진하려면 세금을 깎아주는 게 불가피하다”면서 “대신에 새로운 세원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연말 세제개편을 통해 택시용 LPG 유류세 면제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인하를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효석 원내 대표는 “한나라당이 상속세·법인세·소득세 감면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소득세 1%포인트를 감면하면 세수감소가 1조5천억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50%에 달하는 상황에서 큰 효과를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강대표 “숫자 놀음식 정치 안해...복당 불허”

한 사무총장 권영세 의원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16일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그저 숫자 놀음을 하는 식의 지난날의 정치는 하지 않겠다”며 탈당할 박근혜의 복당 불허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오직 국민과 대의를 쫓아서 국민께서 만들어 주신 정치구도의 민의를 잘 새겨가면서 통 큰 정책을 펼쳐나가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어떻게 하든 내가 대표를 하는 한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최소한 7월 차기 전당대회까지는 복당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강 대표는 이어 박근혜 전 대표의 복당 허용 요구에 대해 “당이 지금 사람을 받아들이고, 계약적 시각의 그런 부분을 갖고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일을 하는 것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사람을 받고 안 받아들이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복당 논의의 자체를 비판했다.

그는 “당내 화합을 하려면 다 받아서 180~190세 되면 좋지”라면서 “당내 화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통합을 시켜서 일을 해야 한다. 계약적 시각, 당파적 시각으로 정치를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16일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방호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사무총장에 재선의 권영세 의원(49·사진)을 임명했다.

또한 정중복 의원이 맡고 있던 제1사무부총장에는 조선인 이명규(52) 의원이 기용됐다.

검사 출신인 권영세 의원은 지난해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박근혜 후보 어느 한 쪽도 지원하지 않고 중립을 표방, 이번 사무총장 인선 과정에서 당내 계파간 화합에 기여할 카드로 꼽혀왔다.

관심없는 공부는 낭비일 뿐입니다! ·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전공의 정통과 강의!

교사 임용시험 풀리지 않으십니까? **관내영교육학**이 자신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관내영교육학

현재 상담 접수중! 마감일의 **개강 5월 2일**

▶ 강의시간: 직강(금)10:30~18:00 · (토)10:00~18:00, 영상반 / 월, 화, 수18:10~22:00 ▶ 수강료: 기본이론반 120만원 (22만원)

※ 관내영고시학원은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많은 문제를 적응 시켰다'는 수험생들을 현혹하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 오직 임용고시만을 전문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에서 합격까지 - 무료상담 '매주 (화,금)11시, 3시, 7시'

개설 강과	교육학 관내영 선형 개강 5월 2일	초등교육 위재권 선형 개강 7월 7일	유아교육 임미선 선형 개강 5월 11일	전공국어 최경태·마은용 선형 개강 7월 초	전공생물 김치옥 선형 개강 7월 초	전공물리 장영민 선형 개강 7월 초
-------	-------------------------------	--------------------------------	---------------------------------	-----------------------------------	-------------------------------	-------------------------------

관내영고시학원 대표전화 **529-0090**
http://www.naeyoung.com

에듀넷 www.edunet.net 02816-1646

신입 및 경력직원 (설계·감리) 모집

당사는 건축설계·종합감리·전기 및 소방설계감리업체로서 금번 신규사업기술영역 참여등 사세확장과 더불어 21세기를 함께 할 경력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분 및 자격

구분	분야	인원	해당공통사항등
감리 분야	○신규: 건축·토목	각 분야 0명	○신규: 설계, 시공, 감리경력이 4년 미만인 자
	○경력: 건축·기계·소방·통신		○경력: 감리사이상 / 전기-고급이성(즉시투입가능자) 통신·소방-비상조도가능
설계 분야	○전기 및 소방분야 설계	각 분야 0명	○자격증소지자로서 최근 기술보수교육 5일 이상자 우대
	○전기 또는 소방분야 설계가능자로서 자격증소지자 우대		○전기기술사소유자 1인 급구

2. 제출서류 및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
다. 자필이력서(반명함판 사진부착 및 우측상단에 응시분야, 연락처, 희망연봉 필히 기재)
라. 경력확인서(감리: 건설감리협회, 건설기술인협회, 전기: 전력기술인 협회, 기타: 해당경력기관)

3. 제출처 및 제출방법

가. 접수기간: 2008년 04월16일부터 해당분야 인원 총원수(04월30일)까지
나. 접수처: 우편번호: 502-180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66-14(4층) 문의전화: 062-382-7560 (주)지에이엔지니어링 총무담당자 F A X : 062-382-7565 E-mail : tohyung3@hanafos.com
다. 접수방법: 우편접수 또는 FAX전송 및 본인 직접접수 가능합니다.
라.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지에이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GLOBAL ARCHITECTS & ENGINEERS CO., LTD.
[건축설계·종합감리·전기소방설계 및 감리업]

=가장 안정된 직업, 늦었지만 나도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상한연령까지=

7·9급 공무원 완전 대비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관세직	검정직	법원직	경찰직	교정직	보통직	소방직	전산직	특수직	특수직	건설직	보통직
-----	-----	-----	-----	-----	-----	-----	-----	-----	-----	-----	-----	-----	-----	-----

※ 특별한 개월, 가점 주무님들을 대상으로한 09:30분 강의사작만 모집 ※

5월 9급 지방직대비 개강 합격수강 회원모집

=공통반 개강: 4월 21일=
5주연성·행정·교정직대비

*특별 1일(주-애매오)
(반대편-접수)

*6개월 (총) 80만원
*1년 (총) 120만원
*합격시까지 170만원

=감(感)이 좋은 학원! 「無等」을 찾아주십시오!! =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위
www.mdgosi.co.kr (중·고·고·대·대)
☎ 222-4560

생활안내 광고

저렴한 광고비 뛰어난 광고 효과!

광고접수 및 문의
직통전화: 227-9600
FAX: 227-9500

주택관리사

★ 2010년 ★

의무채용

★ 실시확정 ★

4월 무료 강의 실시

주택관리사(보)11회

☞ 9월 7일 시험시행

지금 바로 기회입니다!!

현대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옆) ☎ (062)222-6790, 232-1088